광주시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개선

시민 이용 증가 대비 올 213억 투입
개방형체육관·체육센터 등 5곳 건립
무등경기장·월드컵 경기장 개보수

광주시가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을 본격화 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총 213억원을 투입해 개방형 체육관 2곳, 한국수영진흥센터 1곳, 국민체육센터 2곳을 새로 건립하는 등 공공 체육시설 14곳의 확충 및 환경 개선사업을 한다.

개방형 체육관 2곳은 평동산단과 빛그린산단에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500㎡에 지하 1층, 지상 2~3층 규모로 건립한다.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다목적룸 등이 포함되며, 5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5월께 완공할 계획이다.

광산구 남부대학교에 들어설 한국수영진흥센터는 370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8755㎡ 규모로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7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생활 SOC사업인 국민체육센터 2곳은 무등경기장과 상무시민공원에 70억원씩 총 140억원을 투입되며, 연면적 2000㎡~3200㎡에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등이 들어선다. 이달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12월 완공한다.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 458억원을 들여 아마추어 야구장과 1000면의 지하주차장, 주민 휴식공간 등으로 새단장하고 있다. 2022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준공 20년을 맞은 서구 월드컵경기장은 70억원을 투입해 지붕 보수보강 및 녹방지 페인트칠 등을 한다. 올해 상반기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준공한다. 또 지난해 개장한 축구 전용구장은 오는 12월 준공 목표로 13억원을 들여 관람석 안전시설 보강과 화장실, 매점 등 부족한 부대시설을 확충한다.

시는 이 밖에도 시체육회와 도시공사에 위탁관리 중인 33곳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시설물 파손 및 노후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투입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신동하 광주시 체육진흥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별 균형 있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행복둥지사업' 추진
32억 들여 170가구 개보수

전남도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약자에게 안정적 주거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유일의 주거복지사업인 2021년 행복둥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행복둥지사업은 지난 201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작해 2017년 사업 명칭을 바꿔 지금까지 총 707가구의 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했다.

2018년까지 도비와 시군비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9년부터 매년 복권기금 20억여원을 확보해 도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제도권에서 지원받지 못하면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순한 미관 개선, 도배, 장판 교체에서 벗어나 주택의 구조, 전기, 가스 등 주거 안전시설과 난방, 부엌, 화장실 등 생활 편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둔 실질적 주거복지사업이다. 혜택받은 도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올해는 복권기금 24억원과 시군비 8억원 등 총 32억원의 사업비로 약 170여 가구의 주택을 개보수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 전남건축사회 등과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원액을 지난해 가구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했다. 화장실 개보수 시 5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주거 편의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복둥지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행복둥지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약자가 집이 고쳐진 후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조선대 장미의 거리 방문 소상공인 격려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 극복 특별주간'(3월8일~13일) 첫 날인 8일 오후 조선대 장미의 거리를 찾아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애로를 파악하는 등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기업 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농어촌 파괴 안된다"

진보당 전남도당·전농 광주전남
"공영화 사업 방식 추진해야"

민선 7기 전남도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기업 주도의 농어촌 파괴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당(옛 민중당) 전남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8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정의와 탄소 중립사회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당초 취지와 달리 불의와 파괴가 가득 찬 개발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선 7기 전남도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8.2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예로 들면서 "48조원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 역시 SK, GS, 한화 등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향후 에너지 주권을 기업들이 독점하게 되면서 그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책임은 신재생에너지를 기업집단에 넘겨주고 민영화의 길을 열어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앞장서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있다"며 "전남의 바람과 태양, 그리고 산과 들판을 대기업에 넘겨준다면 전남의 미래는 후회와 재앙만 남게 된다"고 경고했다.

진보당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사업 추진으로 전남 13개 시·군 38개 지역에서 주민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농촌 들판과 어촌 염전, 어장 등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업 돈벌이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 민영화가 자연 생태계와 마을공동체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남도를 향해 "민영화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 방식을 공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건물, 도로, 유휴지 등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상처받고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광주시, 최대 2400만원 지원

광주시는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그린 모빌리티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금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급속충전기는 50㎾ 기준 80% 충전까지 30분이 소요된다.

시는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에 맞춰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액을 지난해 대당 500만~1400만원에서 2배 상향해 1000만~24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한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50%를 지원하고 시에서 추가로 보조해주는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전기차충전서비스육성사업'에 선정돼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커피숍 등 민간 편의시설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민간충전사업자다.

지원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4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 대기보전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민간 공용충전기 설치·운영 지원 사업 공고'를 검색하면 된다.

나해천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미래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이 선결 과제"라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민 의견 듣습니다"

광주시, 소통창구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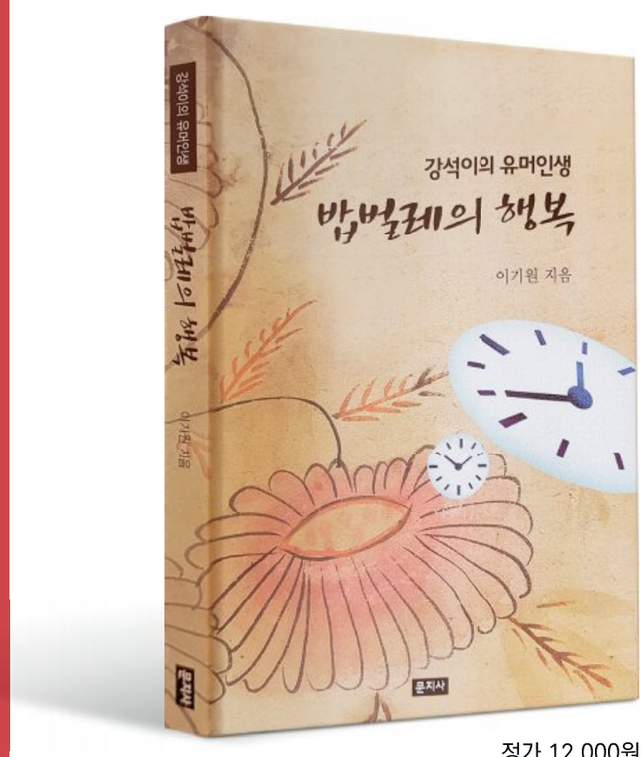
광주시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 소통 플랫폼 '바로 소통 광주'(https://barosotong.gwangju.go.kr)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민에게 묻습니다'를 개설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불편·개선 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노선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용역을 추진 중이다. 노선 개편 내용은 도시철도 2호선 중복 노선 조정, 급행버스 노선 신설, 환승 체계 구축, 환승 정류소 정비 등이다. 시는 교통카드·통신사를 통해 교통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 자료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노선 개편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동별 간담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박남언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도시철도와 연계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내줄수록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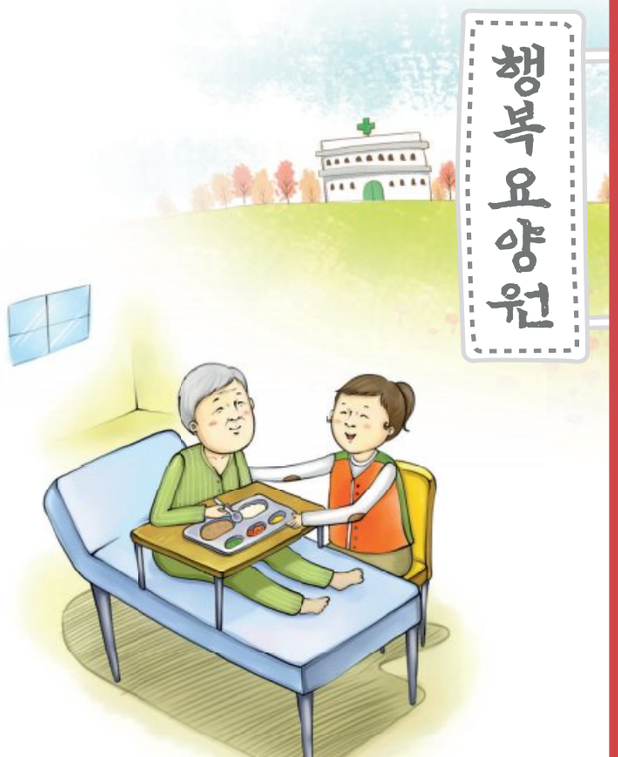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가 12,000원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밥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 기 원



서점판매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홍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